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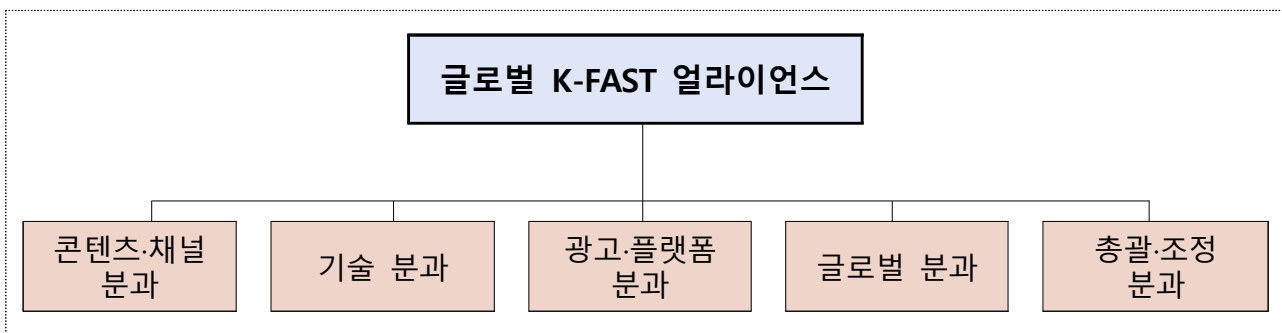
보도시점 2026. 7. 9.(목) 12:00 배포 2026. 7. 9.(목) 09:00
(2026. 7. 10.(금) 조간)

과기정통부, K-OTT(FAST)에 AI 더빙 기술 입혀 한류 글로벌 확산 지원한다!

- 「글로벌 K-FAST 얼라이언스」 참여사 대폭 확대(22 → 82개사, AI기업·방송사·제조사... 망라
 - 「AI 더빙 특화 K-FAST 확산 지원」 사업으로 20개 채널 1,200여 편 지원, 5개월 동안 전 세계 22개국 1억 명 시청
 - 금년에는 버티컬 드라마·K-뷰티·K-댄스 등 특화채널로 장르 다변화
- 【관련 국정과제】 108. 미래지향적 디지털·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방송·미디어 산업의 AI 중심 전환 및 경쟁력 제고**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회장 정재현)는 7월 9일(목)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「글로벌 K-FAST 얼라이언스」(이하 '얼라이언스') 총괄·조정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AI 더빙 특화 K-FAST 확산 지원 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과기정통부는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이 '25년 4월 출범 당시 22개사에서 현재 82개사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「글로벌 K-FAST 얼라이언스」의 운영 체계를 올해부터 ▲콘텐츠·채널, ▲기술, ▲광고·플랫폼, ▲글로벌, ▲총괄·조정의 5개 분과로 개편했다.



'26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괄·조정 분과 회의는 그간 각 분과 회의에서 나온 현안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, FAST 플랫폼·AI 기술·콘텐츠 기업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·콘텐츠 연계,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또한, 이 자리에서는 '26년도 AI 더빙 특화 K-FAST* 확산 지원 사업의 현황을 발표하고,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.

* **FAST** : **F**ree **A**d-supported **S**treaming **T**V (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)
글로벌 FAST 시장 '25년 약 16조 원→'30년 약 23조 원 연평균 7.47% 성장 전망(Statista, '25.8월)

허드슨에이아이 신현진 대표: "K-FAST가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. K-얼라이언스를 통해 AI 기반 더빙 기술로 K-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. 허드슨에이아이는 에이전틱 AI 더빙 기술을 고도화해 K-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에게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."

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: "AI 더빙 특화 K-FAST 확산 지원 사업은 국내 최고의 콘텐츠가 언어의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안방에 현지 언어로 전달되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 이번 사업을 통해 AI 더빙 품질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와 제작 노하우를 축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 또한 K-FAST 얼라이언스와 협력하여 더 많은 K-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현지화와 글로벌 유통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."

그간 기업들은 K-콘텐츠의 현지어 더빙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몰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막대한 더빙 비용과 소요 시간 부담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토로해왔다. AI를 활용한 현지어 더빙은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해외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.

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업 의견과 전세계적인 FAST 산업 및 AI 더빙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FAST 관련 기업간 생태계 조성 및 K-FAS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'2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특히 본 사업 참여 기업들은 AI 기술을 통해 음원 분리, 번역, 합성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정 표현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까지 자동으로 분리 및 재현하고, 전체 맥락을 일관적으로 관리 가능한 'AI 더빙 에이전트'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. 이를 바탕으로 약 1,200편(1,400여 시간 분량)의 K-콘텐츠를 영어·스페인어·포르투갈어로 현지화하여 'AI 더빙 특화 K-FAST 채널' 20개를 구축 완료하였다.

해당 채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K-FAST 플랫폼인 ‘삼성 TV 플러스’와 ‘LG 채널스’를 통해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등 22개국에 송출 중이며, 서비스 개시 5개월 만에 누적 시청자 수 약 1억 명을 달성(‘26.4월말 기준)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< AI 더빙 특화 K-FAST 확산 지원 사업 성과 권역별 송출 채널 수 (103개) >



올해는 ▲사업자 공모, ▲발표 평가, ▲사업 심의·조정을 거쳐,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▲허드슨에이아이(채널명: CJ ENM K-DANCE), ▲이스트소프트(GENIE K-Short, TREND ON), ▲언에이아이(K-Vibe+) 등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AI 더빙 기반 ‘플래그십 K-채널’ 4개를 신규 구축하여 글로벌 콘텐츠 유통 기반을 넓힌다. 이를 위해 채널당 2.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이번에 신설되는 4개 채널은 버티컬 드라마·K-뷰티·K-댄스 등으로 장르를 다변화했다. 나아가 기존 콘텐츠의 단순 해외 송출을 넘어, FAST 오리지널 및 최신 콘텐츠를 확대하고, 최신 광고 기술을 접목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K-FAST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.

< 신규 채널 계획(안) >

- **[버티컬 드라마]** 9:16 세로형 영상을 대화면 TV로 옮긴 ‘듀얼 뷰 인터페이스’를 적용하여 숏폼 드라마 맞춤형 광고 및 즉시 구매가 가능한 커머스 연계
- **[K-뷰티]** 글로벌 FAST 최초의 K-뷰티 오리지널 예능을 편성하여, 기존 콘텐츠를 더빙 송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기획·제작한 독점 콘텐츠로, 전 세계 수요가 높은 K-뷰티 커머스와 연계
- **[K-댄스]**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K-댄스에 대중적인 예능 요소를 접목해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, 페루 걸그룹 오디션 등 현지 협업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멕시코 및 미국 히스패닉 등 스페인어권 시장을 공략

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“글로벌 K-FAST 얼라이언스가 우리나라 플랫폼·AI 및 콘텐츠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급성장하는 글로벌 FAST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,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K-FAS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플랫폼·OTT정책팀	책임자	팀 장	곽 미 경 (044-202-6630)
		담당자	사무관	백 창 훈 (044-202-6636)
관련 기관	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사업전략팀	책임자	팀 장	박 형 준 (02-580-0791)
		담당자	차 장	임 용 호 (02-580-0792)

